

정 의	쯔쯔가무시균 (<i>Orientia tsutsugamushi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
질병 분류	제3급 법정감염병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Rickettsiaceae과 <i>Orientia tsutsugamushi</i> - Rickettsia(리케치아)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,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는 특징 - 다양한 혈청형: 국내에서는 Boryong형, Karp형, Gilliam형 등이 존재
매개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털진드기 유충 - 주요 매개체: 대요털진드기(<i>Leptotrombidium pallidum</i>), 활순털진드기(<i>L. scutellare</i>)
전파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사람이 물려 감염 (주로 경작지 주변의 풀숲 및 관목숲에 분포) □ 사람 간 전파 없음
호발시기	10~12월
호발연령	50대 이상
잠복기	10일 이내
임상 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전신적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- 주요 증상: 발열, 가피(eschar), 반점상 발진, 림프절종대 - 심한 두통, 발열,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- 발병 3~7일 후 몸통·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~2주일 후 소실 -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비대를 보임 □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(진단에 중요) - 사타구니/생식기, 겨드랑이, 오금 등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됨 □ 소화기, 호흡기,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
진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검체(혈액, 조직, 가피)에서 <i>O. tsutsugamushi</i> 분리 동정 □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□ 검체(혈액, 조직, 가피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치 료	□ 독시사이클린,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 치료
치명률	0.1~0.3%(2011~2022년 국내 누적치명률 0.16%)
환자관리	□ 환자격리·접촉자격리: 필요 없음
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위험환경노출 회피: 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-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, 옷을 벗어두지 않기 - 작업 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,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신기 -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, 작업복, 속옷, 양말 등을 세탁하기